

낙동강 유역 물환경연구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

- 낙동강물환경연구소, 지역전문가 초청 소통간담회 개최

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(원장 금한승)은 유역관리, 수생태 등 분야별 지역전문가를 초청하여 3월 28일 오후 낙동강물환경연구소(대구 달성군 소재)에서 낙동강 유역 물환경연구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.

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2020년 대구 달성군의 신청사로 이전한 이후 현장 중심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과학적인 유역 물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을 지원해 오고 있다.

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기후변화 등 물관리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의 성과 창출 및 물환경 연구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.

먼저 행사 1부는 박지형 낙동강물환경연구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성민 낙동강물환경연구소 환경연구관 등 분야별 담당자들이 연구소 소개 및 연혁, 그 간의 연구 성과와 현재 수행 중인 연구 과제 및 미래 연구 방향(기후변화 대응 녹조 장단기 예측 연구)에 대해 발표한다.

2부에서는 지역전문가들과 함께 낙동강 물 쟁점 현안 대응 관점에서 연구 과제들의 부합성을 검토하고, 미래 유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토론한다.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거점 연구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낙동강 물환경 연구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. 소통간담회 이후에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지열 발전시설 및 최신 분석기기를 둘러보는 일정도 마련되어 있다.

박지형 낙동강물환경연구소장은 “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연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민관 협치(거버넌스) 활성화가 핵심이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소통간담회 정례화 등 지역 내 전문가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「지역전문가 소통간담회」 개최 계획.
 2.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청사 사진. 끝.

담당 부서	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	책임자	소 장	박지형 (053-602-2701)
		담당자	연구관	신석호 (053-602-2750)



□ 개최 개요

- (목적) 낙동강물환경연구소의 과거·현재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방향 및 지역거점 환경연구소 역할 모색
- (일시/장소) '24.03.28(목) 14:00~16:00 / 낙동강물환경연구소
- (참석) 분야별 지역전문가 등 내·외부 인사

□ 주요 내용

- 그간(10년) 연구소의 성과, 현재 추진과제와 미래연구 방향 공유 및 전문가 토론*
 - * ① 낙동강 주요 환경현안 및 쟁점, ② 신규 예상 문제 논의, ③환경현안 대응 연구소 연구과제 부합성 검토
- 미래 환경문제 대응 연구소의 역할과 과제 논의

□ 세부 일정

시간		내용	비고
14:00 ~ 14:05	5'	· 인사 말씀	소 장
14:05 ~ 14:45	40'	· 연구소 연혁, 현황 소개 · 낙동강물환경연구소 과거, 현재, 미래 연구	분야별 담당
14:45 ~ 15:55	70'	· 낙동강 주요 환경현안 및 쟁점 등 토론 · 미래 환경문제 대응 역할과 과제 논의	참석자 전원
15:55 ~ 16:00	5'	· 마무리 말씀	소 장
16:00 ~ 16:20	20'	· 연구소 주요시설 및 장비 소개	

* 세부 일정은 현장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

낙동강물환경연구소 신청사



지열 발전시설



전자현미경